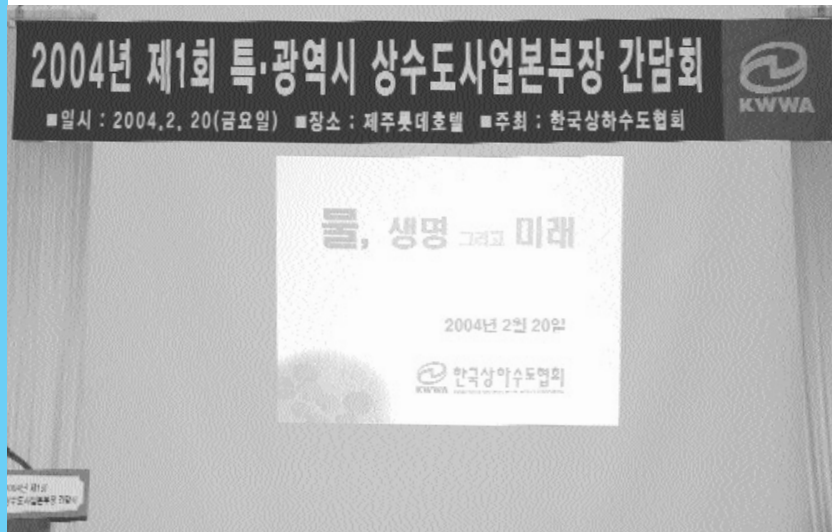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제주 간담회

※ 본 글은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특·광역시 상수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간담회 주요내용

- 상수도 정책방향과 운용계획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 국장·행정자치부 공효식 서기관
- 물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대책
한국수도경제연구소 김길복 회계사
- 지방상수도 운영실태 및 요금 현실화 문제
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박사
- 경영우수사례
서울특별시 신동우 본부장·대전광역시 김홍선 본부장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과 환경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상수도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각 지자체가 직면해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한편, 15,000여 상수도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사업 경영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상수도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광역시 본부장 모임은 2001년에 서울에서 정보교류와 정책건의을 위한 모임을 가진 후 정례화 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모임에서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장은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장이 맡고 개최 시기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 협회와 협의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과 행정자치부 공효식 서기관이 상수도 정책방향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수도경제연구소 김길복 회계사가 물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대책을, 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박사가 지방상수도 운영실태 및 요금현실화 문제를, 서울특별시 신동우 본부장과 대전광역시 김홍선 본부장이 경영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오홍석 본부장, 대구광역시 임병헌 본부장, 인천광역시 박남규 본부장, 광주광역시 박철현 본부장과 울산광역시 이진식 본부장이 경영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열린 토론을 하였고,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문창기 기술담당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정명교 수도사업본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토론의 열기를 더하였다. 간담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에 관한 사항

지방상수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요금현실화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1) 요금현실화 추진상의 애로사항

요금현실화는 시민단체를 이해시키고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고, 인근 지역 보다 요금수준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제시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객관 타당한 비교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 요금현실화 추진방법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당위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며 우리 한국상수도협회와 협조하여 재무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실무자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년 꾸준히 추진하되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제도개선 제안사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기저”와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용도별 수도요금(영업용 요금과 가정용 요금) 격차로 인해 물 값이 싼 부분에서 과소비가 야기되고 있어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방상수



도요금 결정절차를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광역상수도요금 결정절차와 같이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었다.

(4) 정부시책 건의사항

“지방상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투자보수율을 5.5%로 제한하지 말고 30%정도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와 “공기업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요금현실화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투자보수율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결산보고서에 요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경영평가의 경영개선사항 지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상수도 경영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면서, 단체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대도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경영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 경영구조개편에 대한 신중한 견해

확실적인 경영구조개편을 지양하고 현재의 경영조직에 문패만 바꾸면 되도록 단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방향이 잡혀졌고,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사화 등의 경영개편을 추진하여도 당장 경영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의 직영 이점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원수대금 부담이 큰 지자체와 상수원확보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화 등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2) 경영구조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

경영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거시적인 원칙과 방향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철도 구조개혁 시 초기에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부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도립병원 공기업화 사례 등에서 볼 때 현재의 경영조직보다 공기업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부문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신분전환을 선택하게 하면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해소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인 경영개편을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경영구조개편 추진방법

경영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경영단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쟁력 있는 특광역시는 자체계획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하게 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방상수도는 전문기관에 수탁 경영함으로써 경영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사업자가 전환된 공사 등이 인근의 중소기업 사업을 흡수·수탁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민간투자에 의한 방법, 외국기업과 제휴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체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제도개선 제안사항

“상하수도부문의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 수도전문직을 확대(토목, 행정→전 직종)해야 한다”는 제안과 “공사화를 추진하는 과도기에 전문성 있는 관리자 확보와 본부장의 단기재임(1~2년)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본부장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수도전문직 운영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하며, 본부장 계약제는 공사화 추진 시 도입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영제도 하에서는 본부장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기업적인 경영수단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상의 토론결과가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각 참석 기관에 통보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한 연구를 4월말까지 완료

하여 요금산정기준 실무편람을 작성 배포하고 정책건의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며, 추후 2차례(상수도분야 5월, 하수도분야 10월)에 걸쳐 각 道의 상하수도 과장 및 시·군의 국(소)장·과(소)장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하수도 부문의 발전과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